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

인터넷진흥원 사이버범죄 대응

사물인터넷·랜섬웨어에 특화

지능형 제조업 가이드 마련도

■최정에 사이버보안 인력 교육 과정

1차 4~7월(100시간)	2차 9~12월(100시간)	12월 수료
시스템·웹·네트워크 이론 및 실습	시나리오 기반 사이버 실전 훈련 (침해대응 트랙/디지털 포렌식 트랙)	성적우수자 인증서 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백기승·KISA)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산업 변화와 날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KISA는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를 마련하고 ‘최정에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양성교육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 중요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를 마련한 이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생산공장, 즉 스마트공장의 보안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KISA는 제품 공정정보와 설계도, 영업 기밀, 고객 분석자료, 연구개발 성과를 등 중요정보의 안전한 보관·활용을 위해 지

난해 관계부처와 국내 주요 대기업 공장 10개 등 50개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제조공장이 정보보호 전담부서 부재(80.5%), 정보보호시스템 접근권한 이력관리 부재(75.6%), 중요 생산정보 접속기록관리 절차 부재(58.5%) 등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조업 생산 전 과정 중 중요정보의 생성, 활용, 파괴 등 생명 주기별 보안 요구사항 및 세부 적용방안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스마트공장 내 정보보호 조직 구성, 보안 규정을 통한 책임과 역할 부여 ▲외부협력사에 업무 위탁시 계약서상 보안요구사항 명시 등 보안관리 방안 강화 ▲특허기술, 제품설계도 등 중요정보

의 식별 및 등급 부여·통제 ▲중요정보의 생성단계부터 통제정책 구체화 ▲중요정보 접근 시 이력관리 ▲악성코드 감염 및 전파 방지 대책 마련 ▲중요정보의 암호화 방안 ▲중요정보 외부 제공시 유출방지 방안 마련 ▲중요정보 파기절차 및 규정 마련 ▲정기적 취약점 점검 및 보안감사 실시 등이다.

KISA는 또 ‘최정에 사이버보안 인력(K-Shield)’ 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오는 15일까지 정규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사이버공격 탐지, 분석·대응 등 사이버공격 대응력 강화에 특화된 보안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인 이번 교육은 현직 사이버보안 직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이버 공격 기법 분석과 대응력 강화를

위한 이론·실습 중심의 1차 훈련, 가상 시나리오 기반 사이버 실전 훈련 형태의 2차 훈련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특히 2차 훈련과정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및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 포렌식’ 트랙을 신설해 ‘침해대응’과 더불어 2개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KISA는 2013년부터 ‘최정에 사이버보안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현재까지 480여 명의 인종 인력을 배출한 바 있다. 교육과정은 수료한 인증생들은 보안전문기업, IT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KISA 관계자는 “전국 스마트공장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전국 6대 권역별 정보보호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물인터넷, 랜섬웨어 등 4차 산업혁명 변화에 특화된 사이버보안 인재양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농어촌공사·산림조합 ‘山水 가꾸기’ 협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사진 왼쪽)와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최근 농산어촌의 발전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농산어촌의 공동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협력을 통한 정책사업 발굴과 유휴 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 저수지 수원함양 및

수변공원조성, 농산어촌 재해예방사업, 관광휴양사업 등을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 필요한 경우 협력 사업별로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휴양과, 치유, 교육 등 산지와 접한 저수지의 다양한 가치를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중동 진출 역량 인정

아이제이 글로벌 어워드 2관왕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7일 이후 (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 ‘IJ Global Award 2016’ 시상식에서 요르단 푸제이즈 풍력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재원조달과 사우디 라빅 화력사업의 차환(Refinancing) 성공을 인정받아 ‘MENA 신재생 부문 Deal of the Year(요르단 푸제이즈)’와 ‘MENA 차환 부문 Deal of the Year(사우디 라빅)’ 2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12년 멕시코 노르페2 가스화력사업 수상 이후 두번째 쾌거로 평가받고 있다. 푸제이즈 풍력발전사업(89.1MW)은 한전이 단독으로 지분 100% 투자 하여 수주한 사업으로 PF방식 금융

조달에 성공했다.

총사업비는 약 1억8400억달러로 전체 사업비 중 절반 이상을 한국수출입은행(KEXIM)과 국제상업은행 등으로부터 경쟁력 있는 금융조건의 PF방식으로 조달하여 본 사업의 성공을 견인했었다.

사우디 라빅 화력사업(1204MW)은 한전이 사우디 ACWA Power와 함께 2009년 수주한 사업으로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상은 MENA(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한해 2개 사업에 걸쳐 탁월한 성과를 높게 평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된 한전의 파이낸싱(Financing) 역량이 세계 최고임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재호기자 lion@



한국전력은 ‘2016 아이제이 글로벌 어워드’에서 2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왼쪽부터 한전 해외사업처 강봉만 부장, 한전 라빅법인장 최백문 부장, 한전 해외전략금융처 문형일 실장. <한전 제공>

기관당 최대 4억원…콘텐츠진흥원 ‘단비’ 같은 지원금 쏟아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비’는 콘텐츠 기업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을 통해 기획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비와 같은 자금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을 뜻한다.

신청기관은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 ‘단비’ 사업은 총 44억 규모로 ▲현장형 ▲창업형 ▲생태계 조성형 등 3개 분야가 지원대상이다.

‘현장형’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창업형’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단독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 최대 지원금은 1억원이다. ‘생태계 조성형’은 올해 신설된 분야다. 산업현장의 공동 기술수요를 발굴·개발하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복잡한 서류작업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절차

도 도입됐다.

‘단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장 내외의 연구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구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간 연구개발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기관이 구체화한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한편 ‘단비’ 사업은 KOCCA 연구개발정보 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KOCCA 홈페이지(kocc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농촌경제연구원 이메일 서비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장길·KREI)은 관측정보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위해 ‘배추 관측 Daily&Weekly Report’를 제공한다

배추 산지기동반과 관측담당자의 지속적인 산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매주 월요일 ‘Weekly Report’, 매주 수·금요일은 ‘Daily Report’를 제공한다.

이 자료에는 서울가락도매시장 가격과 반입량 동향, 주산지 작황·출하 동향, 정식(의향) 동향 등이 담긴다. 이를

통해 기상 이변 등에 따른 갑작스런 수급 변화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배추 관측 Daily&Weekly Report’는 KREI(www.krei.re.kr)와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aglook.kre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관측본부로 신청하면 이메일과 SNS를 통해 정기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KREI는 향후 마늘과 양파 등으로 품목을 확대해 수확시기 작황과 출하, 가격 등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배추 매매가 동향, 매주 받아본다

특집

에농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3월호

2월 28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사랑받는 미술관, 사랑받는 그들만의 컬렉션

- 광주·전남 26개 미술관, 문화공동체의 중심점
- 사반세기 나이에 그린 광주시립미술관
- 사랑받는 미술관들의 공통점, 매력적인 그들만의 컬렉션

남도 시간 속을 걷다①

82년의 세월이 얹은 보성여관에서 부용산의 슬픔, 태백산맥의 서사에 젖는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②

몸으로 배우는 예술교육 제공 파리 퐁피두센터

노중돈의 꿈의 여행③

건축의 혁신과 예술적 품위 스페인 발렌시아

예향이 만난 이 사람

광주U대회 노하우 'U어드바이저' 출간 김윤석, 배미경

나무 주판알 만드는 주판 달인 김준열

FA '100억' 대어 가이타이거즈 와야수 최형우

예향 초대석

봄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인, 김용택

“시는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줘요”

대한민국 식물명인③

귀한 약재 ‘복령’과 정성으로 빚은 건강 떡 복령조화고 명인 김영숙

문화 화재

문인 배출의 든든한 터, 생오지 문예창작촌

배극남의 대중문화X파일④

소설테이너와 유폴리테이너를 바라보는 시선

박성천 기자의 문화읽기②

‘한국소설이 좋아서’ 50권 선정 전자서평집

국가어항 르네상스 프로젝트⑤

문화와 중국의 뜨거운 품은 정용 화신양

아트 뉴스 & 리뷰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기념

정명화, 손열음, 신지아 트리오 광주 공연

트렌드 따라잡기③

무모해도 좋아, 행복하니까 ‘So, yolo’

남도美味

강진

다산과 영랑시, 질투병 타고 강진만 만났

원탄불고기백반 갈매탕 등 전라도와 밤

노도연(마랑수신사)장, 후가(남원정자)장